

한국 문단의 거목 흙으로 돌아가다



'토지' 작가 박경리씨 타계

문학사에 큰 획... 격동기 한민족의 서사시 그려 토지문화관 세워 후배작가들 창작열 북돋워

“...아아 편안하다/늘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즐거분하다.” (신작시 '옛날의 그 집')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이자 한국 문단의 거목 박경리씨가 지병인 폐암으로 지난 5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1926년 10월28일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고인은 소설가 김동리(1913~1995)의 추천으로 1955년 '현대문학' 8월호에 단편 '계산'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단편 '불신시대'로 현대문학상 신인상, 장편 '표류도'로 김내성 문학상 수상했으며 장편 '토지'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등 장편 20여편을 발표, 현대문학의 거목으로 자리 잡았다.

고인의 최대 역작인 대하소설 '토지'는 집필 기간만 자그마치 26년(1969~1994년)이 걸렸고, 원고지 분량 3만1천200여 장에 이르며 작품 속 등장인물은 700여 명에 다다른다. 지난 2002년에는 나남출판에서 토지 전 21권을 재발간해 100만부 판매라는 기록을 남겼으며, 영어·스페인어·일본어·프랑스어로 번역돼 호평을 받기도 했다.

1897년 하동 폐사리에서 시작해 1945년 8월 해방 때까지 서울, 만주, 일본 등을 무대로 격동기 근대사를 살아가던 민중의 삶을 그린 '토지'는 한국 문학사의 가장 큰 수확으로 꼽힌다. 일

제 강점기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 이후 맥이 끊긴 대하소설의 맥을 살려 '장길산'(황석영), '태백산맥'(조정래) 등 한국 대하소설의 부흥을 선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는 TV드라마를 비롯해 영화·극·창극으로도 제작됐으며, 만화 '토지'와 청소년관 '토지'로 출간되는 등 한국형 문화콘텐츠의 전형으로 자리잡았다. 이밖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상녀와 마녀'(1960년) '김약국의 딸들'(1962년) 등은 TV드라마로 제작됐다.

'토지'의 그늘이 너무 강해서인지 90년대 이후 박씨의 창작활동은 한동안 답보상태였다. 2003년 토지의 후속으로 현대문학에 '나비아 청산가자'를 연재하기 시작했지만 건강 악화로 세 차례 만에 원고지 440여장 분량으로 중도에 그만두어야 했다.

지난달 현대문학을 통해 발표한 '옛날의 그 집' '어머니' '까치 살' 등 세 편의 시는 고인의 마지막 작품이 됐다.

이 밖에도 고인은 1999년 강원도 원주에 토지문화관을 세운 뒤 지금까지 후배 작가들에게 창작실을 무료로 제공해 왔다. 1996년 호암상에 예술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보훈문화훈장·울탄문학상 등 각종 상을 받았다.

또 한국 현대문학계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6월 문화 예술인의 최고 권위있는 상인 금관문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옛 자택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 박경리씨의 생전 모습. 박씨는 1980년부터 원주에 거주하며 '토지'를 집필했다.

화환장이 추서됐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5일동안 문인장(장례위원장·소설가 박완서)으로 치러진 뒤 8일 오전 8시 영결식을 거쳐 9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륵산 양지농원 묘역에 안장된다. 유족으로 외동딸인 김영주 토지문화관장과 사위 김지하 시인이 있다. 02-3010-2631.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문인들의 어머니시여...” 각계 인사 조문 행렬

○... '토지'의 소설가 박경리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이틀째인 6일에도 오전 일찍부터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유의 대통령실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과 함께 빈소를 찾아 화환을 올린 후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직접 영정 옆에 놓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날 오후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토지’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애환함을 금할 수 없다”며 “다른 세상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근태 전 국회의원, 정동영 전 국회의원, 김기열 원주시장, 진익장 통영시장 등도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문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는 “박경리 선생님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있어서 돌아가셨지만 아직 살아계신 것”이라며 “한국의 역사를 현실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개인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분이기에 때문에 선생님의 죽음을 한 연대기의 종지부를 찍은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과거 '문학사상' 주간으로 있을 때 '토지' 2부를 연재했던 인연을 소개하며 “최근 10년 가까이 너무 바쁘다 보니 자주 뵙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전했다.

○...강원도 원주시는 박경리씨의 단구동 토지문화공원 내 집필실 1층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원주 시민들은 지난달 26일부터 박씨의 폐유를 비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 박경리씨의 고향인 경남 통영시는 6일 오전 10시부터 시내 중심가인 강구안 문화마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



지난 5일 타계한 소설가 박경리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에는 문인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일반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은 딸 김영주 토지문화관장과 사위 김지하 시인, 손자 김원보씨, 장례위원장을 맡은 소설가 박완서씨가 지켜 봤다. 박완서씨는 “고인이 생전에 나를 워낙 아껴줬고 또 장례위원장을 맡아주시기를 원했다”며

“평화롭고 곁에 돌아가셨다”고 입중 당시를 전했다.

사위인 김지하 시인은 “이렇게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외에는 취재진들에게 말을 아낀 채 조문객들을 맞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연합뉴스

◇ 소설가 박경리 걸어온 길

- ▲ 1926년 경남 통영 출생
- ▲ 1945년 진주여고 졸업
- ▲ 1955년 8월 현대문학에 '계산' 발표하며 등단
- ▲ 1957년 단편 '불신시대'로 제3회 '현대문학' 신인문학상 수상
- ▲ 1969년 현대문학에 '토지' 1부 연재 시작해 1994년까지 21권 출간
- ▲ 1996년 토지문화재단 창립(이사장)
- ▲ 1997년 연세대학교 국문과 석좌교수
- ▲ 2002년 1월 '토지' 재발간
- ▲ 2003년 문화와 환경전문 계간지 '숲소리' 창간(2004년 말 폐간)
- ▲ 2008년 '현대문학' 4월호에 '까치 살' 등 신작시 3편 발표

제53회 호남예술회제 입상자

- | 관악 | ▲ 금상 |
|--|---------------|
| 심사위원
김을근 교수(충남대)
신상호 교수(전북대)
박혜란 교수(성신여대) | 변예은(신창3) |
| ◇ 플루트(초등부 1, 2학년) | ▲ 은상 |
| ▲ 은상
선우석(광주송원2) | 최경희(광주화정2) |
| ▲ 동상
박주연(살레시오2) | ▲ 동상 |
| ◇ 플루트(초등부 3, 4학년) | 서정민(광주풍암2) |
| ▲ 금상
장민영(광주교대광주부설4) | 김수빈(운리3) |
| ▲ 은상
안채원(동림4) | ◇ 플루트(고등부) |
| ▲ 동상
은혜인(서광4) | ▲ 금상 |
| 최지우(광주용봉4) | 김윤희(광주예술2) |
| 박가령(광주송원4) | 황윤미(전남예술3) |
| ◇ 플루트(초등부 5, 6학년) | ▲ 은상 |
| ▲ 최고상
김 슴(살레시오6) | 이한별(전남예술2) |
| ▲ 금상
박소정(미산6) | 노신영(세종3) |
| ▲ 은상
정세윤(광주학운5) | ▲ 동상 |
| ◇ 오보에(초등부 1, 2학년) | 장주현(광주수피아여자3) |
| ▲ 해당사항 없음 | ◇ 오보에(중등부) |
| ◇ 오보에(초등부 5, 6학년) | ▲ 금상 |
| ▲ 금상
신영환(광주송원6) | 문지현(여도2) |
| ▲ 은상
임다현(살레시오5) | ▲ 은상 |
| ◇ 클라리넷(초등부 5, 6학년) | 최경민(금당1) |
| ▲ 금상
곽일호(광주송원6) | ◇ 클라리넷(중등부) |
| ▲ 은상
고해성(유촌6) | ▲ 은상 |
| ▲ 동상
정어진(광주송원5) | 김민준(광덕3) |
| ◇ 트럼펫(초등부 5, 6학년) | ◇ 트럼본(중등부) |
| ▲ 은상
이호영(광주송원5) | ▲ 동상 |
| ◇ 플루트(중등부) | 양지원(광주동성여자2) |
| | ◇ 오보에(고등부) |
| | ▲ 은상 |
| | 최진실(광주예술2) |
| | ◇ 클라리넷(고등부) |
| | ▲ 동상 |
| | 이영태(전남예술2) |
| | ◇ 트럼본(고등부) |
| | ▲ 은상 |
| | 장영원(광주예술3) |
| | ◇ 트럼펫(고등부) |
| | ▲ 동상 |
| | 김도원(여수공업3) |
| | ◇ 호른(고등부) |
| | ▲ 금상 |
| | 선수민(광주인성2) |
- *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 인물 사진 2매를 5월 13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관원역국사거리 ☎02-1544-0600

1관 아이언 맨 (12세)	최고급관
2관 포비든 킹덤 (12세)/아이언맨 (12세)	
3관 포비든 킹덤 (12세)	
4관 호른 (전세)	
5관 아이언맨 (12세)	
6관 테이큰 (18세)	
7관 가루지기 (18세)	
8관 가루지기 (18세)	
9관 비스티 보이즈 (18세)	

영화 화환 이수하면 고품격 화환이 선물됩니다! (2008.05.03)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호른 (전세)	
2관 GP506 (18세)/추격자 (18세)	
3관 버킷리스트 (12세)	
4관 키투미 (18세)/나의특별한사랑이아기 (15세)	
5관 가루지기 (18세)	
6관 테이큰 (18세)	
7관 스트리트킹 (18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4~400여의 주차장 300대
- 0.0로 심야상영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황포시영 영화시영 • 예매: www.joycbs.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관 뒷편)

1관 아이언 맨 (12세)	
2관 삼국지 (15세)/스트리트 킹 (18세)	
3관 아이언 맨 (12세)	
4관 아이언 맨 (12세)	
5관 비스티 보이즈 (18세)	
6관 포비든 킹덤 (12세)	
7관 호른(더빙) (전세)/가루지기 (18세)	
8관 테이큰 (18세)	
9관 가루지기 (18세)	
10관 호른(더빙) (전세)	

* 호날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점 (10개관) **잡월드 상영중** 상영시간을 방문 11월~12월~1월

새롭게 영화시영 • www.cinusa.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아이언 맨 (12세)	
2관 테이큰 (18세)	
3관 가루지기 (18세)	
4관 포비든 킹덤 (12세)	
5관 호른 (전세)/천일의스캔들 (15세)	
6관 비스티 보이즈 (18세)	
7관 아이언 맨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피트니스 사우나(오전8시~오후11시)

고려시영 고려시영 • www.hamcinema.co.kr / 1588-9120

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포박스 ☎ 267-7777

1관 10,000BC (15세)/연의황후 (15세)	
2관 아이언 맨 (12세)	
3관 삼국지-웅의부활 (15세)	
4관 GP506 (18세)	
5관 아이언 맨 (12세)	
6관 스트리트 킹 (18세)	
7관 테이큰 (18세)	
8관 가루지기 (18세)	
9관 포비든 킹덤 (12세)	
10관 호른 (전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85 매일심야

• 이동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88-5757
- 하미 볼링장 282-08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영빈관 예약 261-2000

새로운 기쁨 • www.zimzcinema.com / www.jebcinema.co.kr

제일 시네마

충정로 37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아이언 맨 (12세)	
2관 아이언 맨 (12세)	
3관 테이큰 (18세)	
4관 포비든 킹덤 (12세)	
5관 가루지기 (18세)	
6관 호른 (전세)/추격자(18세)	

• 무료주차 3시간 (광주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227-1960